

청년, 빈곤을 말하다

KC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빈곤’이란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기본적인 삶과 사회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원과 기질이 박탈, 결핍된 상태를 일컫습니다.



과연 우리나라 청년은 자신의 삶을 얼마나 빈곤하다고 여기고 있을까요?

KC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년 빈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균형 잡힌 청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개요



조사 대상

한국 만 19~34세 청년
4,032명



조사 기간

2022년
6월~7월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KC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01

청년 중 대학 및 대학원 재학 중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대학에서 정규교육 이외에 진로 준비를 위한 취업준비나 진로상담 등의 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진로상담을 받은 경험이 없는 청년이 과반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C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02

청년을 대상으로 학교 졸업 이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필요하다’라는 응답이 86.8%로 높게 나타났다.** 청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로 **학교의 취업준비교육이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39.6%)**이라고 꼽았습니다.

졸업 이후 직업훈련교육의 필요성



KC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03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분야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교육 빈곤층’이라는 응답이 27.8%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청년들의 4분의 1 이상이 스스로를 **교육 빈곤층**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육 분야 주관적 계층의식



KC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04

청년을 대상으로 최근 청년들이 최대한 자금을 모으는 ‘영끌’을 통한 자기 주택 현상의 원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장후 주택 마련을 못 할 수 있다는 불안 심리의 영향이다’라는 응답이 37.1%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최근 청년들의 영끌을 통한 자기 주택 현상에 대한 인식



KC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05

청년을 대상으로 우리 사회에서 자신의 소득만으로 주거 마련 가능 여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불가능’ 응답이 76.3%로 주를 이뤘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자기 마련 시 **부모의 자금지원이 필수’라는 의견은 76.9%에 달했습니다.**



KC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06

주거 분야 주관적 계층의식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하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은 68.7%, 빈곤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31.3%였습니다.** 청년의 3분의 1 가량이 자신을 **주거 빈곤층**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KC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이번 연구를 통해 청년 빈곤에 대한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사회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 빈곤 실태와 지원안진행 체계 구축방안 연구 II
김현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근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KCS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